새 대통령에 바란다

골목상권 살릴 경제민주화 절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집행위원장

중소상인과 시장상인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쳐 골목상권이 대형 유통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대선 전 화두였던 경제민주화가 5대 주요 국정과제에서 빠져 중소상공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관련한 공약들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직 체계도 보완해 경제분야 핵심공약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다.

5년간 중소도시에 대형마트가 입점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광주에는 대형마트 진출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지역인재 고르게 등용 제도화를

▲백상일 광주신세계 홍보팀장

지역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좁게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넓게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바지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또 국정 전반에 있어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은 당자사간의 입장과 문제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충분한 경청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소통과 공감을 바탕에 둔 정치를 펼쳐주길 바란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 약속 지켜라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지역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산업계는 참여정부 이후 명맥이 끊겼다.

광주를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최근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데,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대형공약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하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광주는 자동차생산 도시로 기반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배려가 있다면 가능하다. 국가적 수출에 있어 광주·전남지역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 역할을 감안해서라도 새정부에서 이전보다 더 공을 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은 인수 지역민 숙원 풀어줘야

▲최종만 광주상의 상근부회장

지역의 숙원사업인 광주은행 인수와 동북아상품거래소 설립 등이 공약추진사업에 빠져 있다.

지역 숙원사업인데다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만큼 새 정부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한다.

새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경제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보완책도 좋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과감히 투자하는 것도 경제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새 정부의 새로운 시도가 중요하다.

현실적인 중기정책 시스템 중요

▲이의준 광주·전남중기청장

당선되자마자 '중소기업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연구개발정책 또한 대폭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성장이야말로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집중투자해야 미래창조가 가능하다.

광주전남지역은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강한 데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이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활용해 주길 바란다.

민주 5·4 전대…차기 당권주자 누가 나설까

비주류 김한길·김영환·이종걸·정동영 출마 검토

친노측 김부겸·신계륜…범주류계 정세균도 거론

민주통합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5월초 정기 전대'로 가닥이 잡히고 전대룰도 확정되면서 당 주도권을 둘러싼 차기 당권 투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기 2년의 차기 당 대표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하에서 권한이 커지는 데다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갖기 때문에 계파간 경쟁도 뜨거워질 수 밖에 없다.

우선 비주류 좌장격인 김한길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다. 김 의원은 대선 패배 책임론을 고리로 친노·주류 그룹과 각을 세우며 변화와 쇄신을 위한 주도세력 교체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비주류 그룹에서는 김 의원 외에 4선의 김영환, 이종걸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동영 상임고문, 천정배 전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선 패배 후 '정중동' 모드에 들어간 친노·주류측에선 대구·경북(TK) 3선의원 출신의 김부겸 전 의원이 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로 비중있게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막판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친노·주류와의 연대가 부각될 경우 비주류측의 책임론 공격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에 협력하고 싶다, 협력할 여지를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출마를 고심 중으로 알려진 4선의 신계륜 의원도 범친노·주류측과 연대가 가능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계에 뿌리를 둔 4선의 추미애 의원과 범주류계로 분류되는 정세균 상임고문의 행보에도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 내에서는 재선의 우원식, 이목희 의원 등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아직은 물밑 탐색전 수준이어서 구체적인 후보군은 3월 중순쯤에나 윤곽을 드러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2일 당무위를 열고, 5·4 정기전당대회 개최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되며 지도부 규모는 기존의 11명에서 9명(당 대표 1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지명직 최고위원 3명, 원내대표 1명)으로 축소됐다.

지도부 선출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를 없애고 '대의원 50%+권리당원 30%+일반국민 여론조사 20%'방식을 도입키로 결정했다./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5년 임기 마치고 사저 복귀 이명박대통령

마지막날도 태국 총리와 정상 외교

청와대 전·현직 직원들과 작별인사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5년간 머물렀던 청와대를 떠나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떠나기에 앞서 외국정상과의 면담을 포함한 국가정상으로서 공식 외교일정을 소화하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 취임 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의 다짐대로 이날도 일정표를 빼곡히 채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오전 9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초대 의장을 맡은 라르스 뢰켄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를 접견했다.

라스무센 의장에게는 우리나라가 추진해 처음으로 국제기구화한 GGGI에 적극 협력한 공을 인정해 훈장을 수여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류옌둥(劉延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만났다. 핵실험 이후 북한의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차기 정부와도 긴밀한 정보 공유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오후 국가 정상으로서 마지막 외교 일정으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5년 전 취임 첫날인 2008년 2월25일을 국립 현충원 방문으로 시작한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고락을 함께했던 600여명의 청와대 전·현직 직원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연도에 늘어선 직원들의 환송과 꽃다발을 받은 채 정문 앞에서 승용차 편으로 논현동 사저로 복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선 강기정·이용섭 도전장

민주 지도부 경선…이낙연·김동철 "불출마"

지역 정치권 전폭 지원·단일화 여부 주목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차기 지도부 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

차기 5·4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됐던 지역 주자들이 하나 둘 뜻을 접고 있는데다 호남 정치력 복원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공조 분위기도 좀처럼 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4선의 이낙연(영광·장성·함평·담양) 의원과 3선의 김동철(광산갑) 의원이 사실상 지도부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의원은 24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기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경선 참여와 차기 전남도지사 도전이라는 두 손의 떡을 모두 욕심낸다는 것은 부담"이라며 "특별한 계기가 생긴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차기 전남지사 도전에 전념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도 "비대위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전당대회를 마무리 짓는 것이 책무"라며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지도부 경선에 도전하는 것은 무리며 전당대회 이후, 원내대표 경선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선의 박지원(목포 을) 의원도 지도부 경선 참여에 뜻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차기 전대에서 지도부 경선에 나설 주자는 3선의 강기정(북구 갑) 의원과 재선의 이용섭(북구 을) 의원으로 좁혀진 상황이다.

문제는 두 의원 모두 당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 호남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 사람이 나와도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면 승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단일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위원 주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점에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악의 경우,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지도부에 단 한 사람도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호남 정치력 복원이라는 지역 민심의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 민주당 지도부 진입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연대 의지는 그리 높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연대 움직임보다는 관망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정현 靑정무수석 내정자

새누리 최고위원직 사퇴서

후임자 유수택 거론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내정자가 24일 새누리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최고위원직 사퇴서를 당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내정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취임식 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이 내정자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후임자를 지명하게 된다.

이 내정자가 지난해 4·11 총선 이후 호남 배려 차원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됐던 만큼, 후임자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호남 출신 인사를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자로는 유수택 새누리당 광주시당 위원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공인 (2010. 11.24 교과부 제2010-1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가공인한자·한문 지도자사자격등급 (특급·1급·2급·3급)

★모집기간 : 2013년 2월 4일(월) ~ 2013년 3월 7일(목)
★연수기간 : 2013년 3월 7일(목) ~ 2013년 8월 17일(금) (6개월/24주/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2:40 / 오후반 14:00~17:30

과정명	개강일시	수업과목	수업시간	모집인원
아동지도사	3.7(목)오전	• 한자의 기본원리 • 한자 1000자 지도	64시간	30명
기초(2,3급)	3.9(토)오전	• 부수해설·사자소학 • 명심보감·추구	1단계 96시간	30명
심화(1급)	3.8(금)오전	• 소학·대학 • 중용·격몽요결	1단계 96시간	30명
특급(훈장)	3.6(수)오전	• 논어·맹자 • 고문진보	1단계 96시간	30명

★유능한 강사진·저렴한 수강비 등 고객만족 수강하세요

수료·자격취득후 특전
• 방과후 학교 한자·한문지도강사·한문학원 개설
• 각 대학 평생교육원·학원·시·구청·복지관 한자지도강사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자격취득기회

▶수 강 료 : 350,000원/농협 175375-56-065137(이종순)
▶수강신청 및 접수처 : (사)한자교육 진흥회 광주·전남본부
문의상담 : ☎062)366-9666, 011-607-6292

국가공인 자격관리·운영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주관
한국한자,한문지도사 연수원 시행
(광주시 서구 농성동 633-28 , 건강관리협회부근)
E메일 : hanja-exam@hanmail.net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투자 하실 분
▶물건 : 경매 진행물건 중 NPL과 특수물건
▶보장 : 등기/근저당 설정
▶자금 : 1억원 이상
▶기간 : 1년정도
▶수익 : 투자 대비 고수익
(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배우실 분!
▶분야 : NPL과 특수물건
▶시간 : 주1회, 2시간 3개월 과정
▶특징 : 배우면서 투자가능 1인1물건 낙찰보장
▶수강료 :550만원
(주)오천경매 H.010-4667-9300

못 받은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공증문서 ■대여금
■법원판결문 ■운송료
■각종채권 ■구상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3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60만원 임대중
3. 매매가, 9000만원
4. 문의 : 010-3605-5000

매매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1. 2층 48평, 사무실 전용
2. 현, 보1000만원에 월50만원 임대중
3. 매매가, 9000만원
4. 문의 : 010-3605-5000